

日 원전 추가폭발 우려... 방사능 공포 대혼란

일본 대지진

관련기사 ▶ 2·3·4·5·8·10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피폭자 속출 인근 주민 21만명 긴급대피 나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12일 폭발 사고가 발생, 피폭자가 속출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일본이 대지진·쓰나미 공포에 이어 이번에는 '방사능 공포'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또한, 제1원전 원자로 3호기에서도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사능 공포는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13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TEPCO)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8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호기가 설치된 건물이 여진으로 추락되는 강한 진동 직후 폭발했다.

이 폭발로 지붕과 벽이 무너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노출됐고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번 폭발은 핵연료봉 피복재가 냉각수와 반응하면서 발생한 수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원전 보수작업을 벌이던 인부 4명이 부상한 가운데 원전 인근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방사성 요소가 검출되고 90명에서 최대 160여 명까지 피폭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제1원전의 원자로 3호기에서도 13일 추가 폭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이

원자로에서 연료봉들이 잠시 노출돼 부분적 노심용해가 진행중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은 3호기의 폭발방지를 위해 원자로에서 방사능 증기를 빼내는 긴급작업을 시작했지만 추가 폭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황이다.

강진에 따른 원전 폭발과 방사능 공포가 현실화되자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21만 명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피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밤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대피 명령 대상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에서 20km로 확대했고, 제2원자력발전소는 반경 3km에서 10km로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원자로 냉각시스템 작동이 중단되는 '긴급상황'이 잇따르며 대피가 계속된 여진으로 추가 폭발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 일반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는 낮아져 안심시키고 나섰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까지 방사능 피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일본 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센다이시 주민들이 옷가지 및 별한 쟁긴 채 울먹이면서 황급히 폐허로 변한 마을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야기현 등 2만7000명 행불

사망·실종 4만명 추정

일본 북동부 동해안을 덮친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미야기(宮城)현과 이와테(岩手)현의 주민 2만7000여 명이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행방불명자가 많아 사상 최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 기상청은 12일 대지진의 규모를 예초 발표했던 8.8에서 9.0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 3·11 강진은 1900년 이후 지구상에서 4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13일 오후 5시 현재 일본 경찰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는 약 800명이다. 하지만, 이와테(岩手)현의 리쿠젠타

카타(陸前高田)의 주민 1만 7000여 명과 미야기(宮城)현 미나미산리쿠초(南三陸町) 주민 1만여 명 등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 수가 3만8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지진 참사에 따른 전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4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미야기현 측은 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사라진 미나미산리쿠초의 전체 주민 1만7393명 중 7500명은 대피소 25곳에 몸을 피했지만 나머지 1만명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은 이날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야기현 경찰서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미야기현 해안에서는 주민 시신 200

가 발견됐다.

이와테(岩手)현의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에서도 전체 주민 약 2만3000여명 가운데 5900명은 대피가 확인됐지만, 1만7000여명의 대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 이후 지금까지 모두 15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피해지역에 10만 명의 자위대 병력을 긴급 투입해 인명 구조 및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고, 미국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9만7000t급)가 13일 일본 근해에 도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행렬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도호쿠 교민 60여명 연락 두절

강원태 시장, 센다이 위로 전문

가구 등 약 60명이며,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 또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던 교민 2명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교민들의 피해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태 광주시장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일본 센다이시 오쿠야마 에미코 시장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강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센다이 시민에게 광주시민을 대신해 마음속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특히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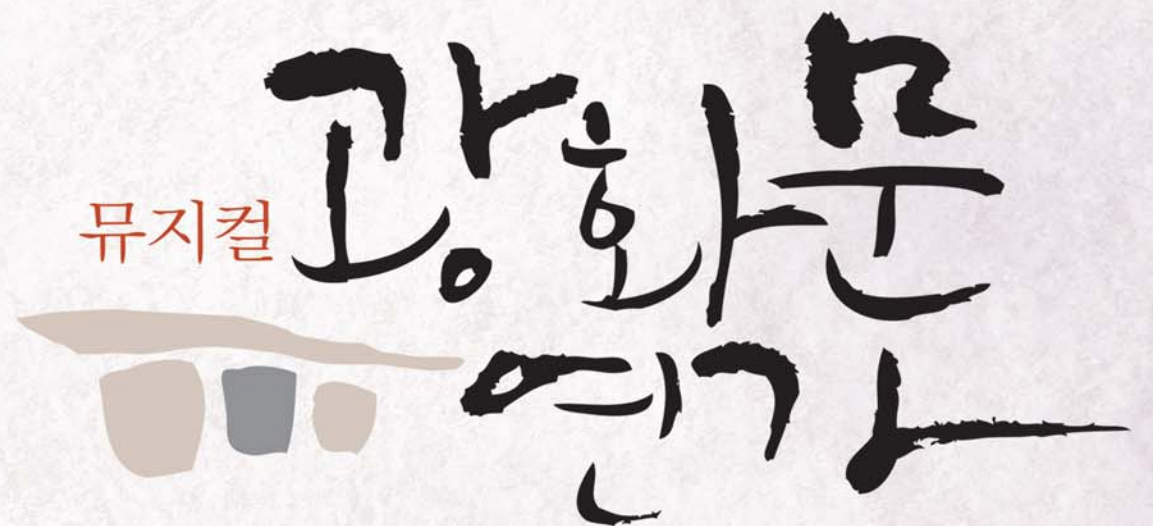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윤도현, 송창의, 김무열, 리사, 양요섭(비스트)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